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23일(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 해양산업팀장 나민환 ☎440-4846 • 담당자 장연희 ☎440-4848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에 가봤니?

- 극지 및 기후변화 이해 위한 시민입문강좌 열어 -
- 11.24~26, 12.1~3, 총 6회, 각 3시간, 송도 외대 국제교육센터 -
- 극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극지연구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문제 공감 계기 될 것 -

환경특별시 인천이 시민성 함양을 위한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은 극지 및 기후변화 이해를 위한 시민입문강좌 ‘극지의 이해 시민문화교육’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극지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극지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에 발맞춰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남극과 북극에 대한 전문가의 이해하기 쉽고 흥미진진한 주제를 바탕으로 극지의 다양한 모습을 탐험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상황에 대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교육장 내 대규모 수강생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인천시 홈페이지 (<http://tv.incheon.go.kr>)에 교육내용을 영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극지는 해운·항만산업 분야에서 미래 자원의 보고이며 극지의 환경변화는 해양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역” 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이 극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극지연구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환경특별시 인천은 시민들이 해양과학분야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 고 덧붙였다.

극지 및 기후변화 이해를 위한 시민문화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인천시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한국외대 극지연구센터에 이메일(polar@hufs.ac.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붙임> 극지의 이해 시민문화교육 포스터 1부.

2021. 11. 24. - 12.03.

인천시·한국외국어대학교 극지연구센터와 함께 하는

극지의 이해 시민문화 교육

무료강좌

대상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극지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강좌 개최계획

차수 총6회 강좌 (각 3시간)

일시 2021년 11월 24~26일, 12월 1~3일
오후 14:00~17:00

장소 인천광역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 외대 국제교육센터 102호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11번길 22

접수처
한국외대 극지연구센터 ☎032-822-9382
e-mail ▶ polar@hufs.ac.kr

문의처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032-440-4848
한국외대 극지연구센터 ☎032-822-9382

**극지·기후변화
이해를 위한
시민 입문 강좌**

세부 일정			
구분	일자	강사	주제
1회차	11.24.(수)	김봉철 교수 (한국외대 EU연구소 소장)	북극과 남극 : 미지세계로의 여행
2회차	11.25.(목)	정혁 책임연구원 (한국외대 극지연구센터)	따뜻해지는 지구, 얼음이 녹는다 : 기후변화와 극지역의 환경문제
3회차	11.26.(금)	강덕수 교수 (한국외대 명예교수)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에 가봤니? : 세계최저기온의 사하공화국(야쿠츠크와 오이마콘)
4회차	12.1.(수)	홍완석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북극의 관문-러시아 극동
5회차	12.2.(목)	신형철 부소장 (극지연구소 부소장)	한국 극지 이야기
6회차	12.3.(금)	하상섭 교수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남극으로 가는 마지막 대지, 파타고니아-개발과 보호의 딜레마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극지연구센터

후원 한국연구재단